

중학생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 연구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제1저자)

한지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공동저자)

편지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공동저자)

변은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공동저자)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6.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분석
- V. 논의 및 제언

I. 서론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문식 환경의 일상화는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왔으며, 이를 구성하는 단위이자 실현 기호로서 양식(mode)에 대한 정밀하고도 풍부한 이해를 요구한다. The New London Group(1996), Kress(2003, 2010)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화 기제로서의 양식의 의미와 범주, 그 하위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문식 주체로서 학생들이 이러한 양식의 존재와 의미 작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새로운 기호 작용으로서의 양식과 그 실현태인 복합양식 텍스트를 교육의 장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사용 주체인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 반응을 ‘정보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식하는 양식의 범위 및 인식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정보성이란 수용자에게 제시된 텍스트가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Beaugrande & Dressler, 1981/1995: 209), 동일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독

자마다 정보성의 수준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에서의 정보성은 그 단위가 양식으로 설정되는바,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관여하는 양식의 종류와 그것의 의미 작용 방식이 독자가 느끼기에 얼마나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가를 의미한다(편지윤 외, 2018).

그간의 정보성 연구들은 특정 장르나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단위에서 정보성의 수준이나 정보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상의 특징을 살피는 데 주력해 온 경향을 보인다(신지연 2007, 2016; 오장근 2014; 윤재연, 2004, 2005; 이석규, 1998; 조국현·김근혜, 2017).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텍스트 단위의 정보성을 논할 뿐, 이를 구성하는 양식들의 정보성을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복합양식 텍스트의 정보성 수준은 각 양식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에, 양식 단위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 양식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을 정보성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이 인식하는 양식의 범주는 어떠한가?
2.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인식하는 수준 및 양상은 어떠한가?

정보성은 독자에게 낯설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의미구성 시 깊이 있는 의미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정보’로서 인식되는 텍스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양식의 정보성이란 어떠한 양식이, 그리고 양식의 의미 작용 방식 중 어떠한 것이 독자에게 ‘정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편지윤 외, 2018: 505). 독자가 어떤 양식을, 그리고 양식의 의미 작용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전자가 양식의 정보성에 대한 독자 인식의 양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은 양식의 정보성 인식에 대한 양적 측면으로, 학생들이 양

식으로 인식하는 기호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기호들은 독자가 그 의미 작용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학생들이 의미화하고자 한 혹은 의미화한 기호의 목록을 추려내어 양식 인식의 범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는 양식의 정보성 인식에 대한 질적 측면으로, 각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양상과 수준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각 양식이 텍스트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즉 얼마나 그 양식의 작용에 익숙하며 실제로 의미구성 시에 부려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양식의 인식 및 사용에 대한 연구

양식의 범주 및 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Cope & Kalantzis, 2009; Kress, 2003; The New London Group, 1996; Walsh, 2006 등)에서는 양식을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행위적, 공간적 의미 및 재현 요소로 분류하거나, 촉각적 요소 및 디지털적 요소인 하이퍼링크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그 하위에 속해 있는 양식들 각각의 특성을 종체적으로 포괄하는 범주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양식의 인식과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식의 인식 및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복합양식성의 관점에서 양식의 인식 및 사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거나(김희동, 2015; 송여주, 2013; 이지영, 2013; Jewitt, 2008; Kress, 2003), 양식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 문식 실천을

논하는 연구들(강훈식 외, 2006; 강훈식, 2007; 남정희 외, 2012; 백혜선·이규만,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이재은, 2017; 주민재, 2017; 편지윤 외, 2015; Costley et al., 2016; Jewitt, 2008; Kress, 2003, 2010; Leander & Lewis, 2008; Nouri, 2018; Roberts, 2017; Selander, 2016; Walker et al., 2011)로 진행되어 왔다.

전자는 복합양식성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양식 텍스트에서의 양식의 쓰임에 대해 주목한다. 복합양식성이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내는 다양한 기호 체계의 결합과 작동 방식(김선아 외, 2017: 42)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양식들의 배치 및 조작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표현되는 방식과 전체적인 의미의 변화(송여주, 2013)가 생기는 텍스트라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각 양식이 가지는 의미와 복수의 양식이 구성적으로 생산하는 의미에 대해 주목하여 텍스트에서의 양식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양식의 고유한 의미 작용과 양식의 복합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성(materiality)에 의해 양식의 전체적 의미 작용이 달라짐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있다(김희동, 2015; 송여주, 2013). 이러한 논의에서는 기존 문자 양식과 함께 제시되는 다른 양식들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시각 양식인 그림 텍스트(삽화)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적 관계 양상에 따라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위치를 상정시키거나 때로는 그림 자체에 대한 서사적 의미 분석을 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송여주, 2013). 이는 텍스트의 반영적 재현 혹은 텍스트 내용 보완이라는 역할에 한정되었던 기존 시각 양식의 의미 기능역을 보다 확대시킨 것이면서, 복합 양식 텍스트에서의 양식의 작용적 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 양식이 ‘상호 재매개’ 현상을 통해 시각화, 청각화, 영상화 등 다양한 감각의 연합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논의(김희동, 2015)도 있다. 이는 기존의 문자 양식에 대한 인식이나 문자 양식에

기대되는 의미 작용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양식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술한 텍스트 연구들이 양식의 쓰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예측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과학이나 수학 등의 타 교과 영역에서 ‘다중표상(multimodal representation)’의 내재성이나 이에 대한 학생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복합양식’의 교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즉, 다중표상 논의들은 과학적 개념 이해를 돋기 위해 글, 그림, 애니메이션, 공식, 그래프 등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유도하는 다양한 외적 표상들을 활용하여 다중표상의 연계의 교육적 효과성을 담보하거나(강훈식 외, 2007), 글쓰기나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중표상을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한다(강훈식 외, 2006; 남정희 외, 2012). 이처럼 과학 등의 교과에서는 학습을 위한 여러 양식들의 제공과 관련한 교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문식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양식 간의 연계를 통한 개념 학습의 효과성 여부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문식 환경 하에서의 양식 그 자체에 대한 인식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 논의로 복합양식 문식성의 실천 양상과 양식 사용의 경향성을 살피고 있는 몇몇 논의가 있을 뿐이다(백혜선 외, 2013; 편지윤 외, 2015). 편지윤 외(2015)에서는 디지털 문식 환경의 친숙도에 따라 양식에 대한 사용 양상 및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집단의 비교를 통한 학생들의 경험적인 양식의 목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합양식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문식 실천 차원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국외의 연구에서는 의미구성과 학습을 위해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 다중 기호 자원으로서의 디지털 양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Nouri, 2018),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의 영상 활용이 학습자의 참여 혹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Costley et

al., 2016), 혹은 복합양식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이미지 활용의 효과를 논의 (Roberts, 2017)하는 등 기존 문자 양식에 한정되지 않은,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복합양식들을 활용하는 학습자들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Nouri, 2018).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합양식(텍스트)의 특성을 밝히고 이상적 학습자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양식 활용상의 경향성에 주목하고 있고, 양식 자체 혹은 양식의 활용에 대한 학생 인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 원리 및 효과를 제시 또는 입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내용 교과의 구체적 지식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합양식 문식 실천 논의와 관련하여 학생의 양식 및 양식의 의미구성에 대한 인식에 실제적으로 접근하여야만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디지털 문식 환경 하에서 양식의 존재 자체, 더 나아가서는 양식(들)의 의미 작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정보성 인식에 대한 연구

양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양식의 의미나 기능, 작용을 파악하고 있는가와 같은 양식에 대한 친숙도 및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텍스트 이해의 수준을 다루는 정보성의 차원에서 양식이 얼마나 새롭고 예측불가능한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성의 하나인 정보성은¹⁾ 텍스트의 전체적 특성을 포괄하는 상위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식의 정보성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은 양식의 본질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중

1) 복합양식 텍스트성으로서의 정보성(informativity)에 대한 논의는 편지윤 외(2018)를 참고할 수 있다.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교수학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성 인식에 대한 논의는 텍스트 생산의 차원에서의 정보성과 수용의 차원에서의 정보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의 차원에서는 생산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텍스트의 정보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텍스트에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주요한 화두가 된다. 반면에 수용의 차원에서는 수용자가 해당 텍스트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텍스트 정보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문학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하는 복잡한 결속구조와 결속성,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석규, 1998), 불일치성과 불연속성, 비개연성(신지연, 2007), 문법적 일탈, 어휘의 선택 제약 과정, 담화 구조 뒤섞기(신지연, 2016)를 통한 생산자의 의도와 수용자의 해석의 질적 차이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광고 텍스트 장르에서는 정보성을 광고에의 몰입이나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 유발 등 독자로 하여금 광고의 의미 파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복합양식 텍스트로서의 광고 텍스트에서는 정보성 인식과 관련된 요소로 요소의 노출 빈도, 위치, 화자 유형(윤재연, 2005), 구체성과 접근 용이성, 대상의 재현성(오장근, 2014),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에서의 ‘새로움, 낯섦, 비예측성’의 정도(조국현·김근혜, 2017)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전술한 논의에서는 주로 정보성 수준을 결정하는 텍스트의 특성과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보성 인식의 차원에서 학생이 이러한 텍스트적 특성과 요소를 인식하는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의 정보성 인식의 양적이고 질적인 차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복합양식 텍스트의 차원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환원하여 인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양식 차원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식 차원에서 정보성을 논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식의 정보성을 학생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밝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복합양식 텍스트에서의 양식의 정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를 읽는 학생의 실제적 맥락을 교육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고는 디지털 문식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들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연령상 중학생을 연구 대상²⁾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편의 표집의 방식을 통해 디지털 문식 환경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중학교 2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02.27~2018.02.28에 걸쳐 시선추적 장치 실험³⁾과 정보 회상 검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 학생의 배경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 Prensky(2001)는 1980~1994년에 출생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으로 지칭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그 이후 출생한 세대 역시 디지털 원주민의 범주에 속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 3) 본 연구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선추적장치(Eye-Tracker)의 제품명은 SMI iView XTM RED5-500Hz로, 초당 500회의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분야 연구에서의 섬세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텍스트 및 영상에서의 시선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광고 영상에서의 시선추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동자 움직임 데이터는 연동분석소프트웨어인 BeGaze 3.3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

연구 대상(중 2)	디지털 매체 활용 시간	국어 성적 ⁴⁾	시선 추적 비율 ⁵⁾
학생 A	4	상	92.7
학생 B	9	상	95.9
학생 C	5	상	86.8
학생 D	7	중	95.2
학생 E	7	중	97.4
학생 F	12	중	92.9
학생 G	1.5	하	79.5

디지털 매체 활용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매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하루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 문식 환경에의 노출 정도 및 친숙도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양식의 정보성을 인식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맥락 정보로 활용하였다. 국어 성적은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중학생들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선추적장치(Eye-tracker)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광고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 및 녹화하는 시선추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고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광고 전반에 대한 정보 회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보 회상 결과 자료는 1차적으로 학생들이 광고 영상을 의미처리를 하며 시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광고 영상에 사용된 여러 의미 기호들을 양식의 차원에서 처

-
- 4) 국어 성적은 중간, 기말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70점 이하는 하, 70~90점을 중, 90점 이상을 상으로 평정하였다.
 - 5) 시선추적비율은 학자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나, 대개 80% 이상의 시선추적비율을 보일 경우 분석 자료로서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보한다.

리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었다. 시선추적 데이터는 연구 대상들이 광고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오래 응시하였는지를 보여주지만, 이것이 곧 의미화 기호로서의 인식이나 활용 양상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광고 영상을 시청한 후 기억나는 모든 것을 회상하도록 하고 그 의미를 작성하도록 하여, 양식에 대한 의미처리 여부 및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보 회상 검사지를 작성한 후에는 광고의 주요 장면을 제시하고, 각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작용한 양식 3가지를 선정하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에는 광고를 시청하는 동안의 눈동자 움직임을 기록 및 녹화한 시선추적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보는 사후 인터뷰와, 장면별 양식 선정 결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장면별 주요 양식 평정 설문지

보기	1) 글자 2) 글자의 모양, 색깔, 크기, 굵기 3) 내레이션(음성 해설) 4) 배경음악 5) 효과음 6) 화면의 구도(레이아웃) 7) 화면의 이미지(그림, 사진) 8) 인물들의 행동(제스처) 9) 화면 전환 속도, 방향 10) 그 외	영상	1순위	2순위	3순위
장면 번호					
1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집한 자료는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조사지, 광고 시청 과정에서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한 시선추적 데이터, 그리고 심층 인터뷰 전사본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다음 〈표 3〉의 분석들에 의거하여 연구자 3인이 개별 코딩 후 교차 검토하였다.

즉, 〈표 3〉은 제시된 광고 동영상의 양식(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양상

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양식의 유형과 해당 양식의 광고에서의 실현 양상이다. <표 3>의 분석틀은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 3인이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되는 각 양식에 대한 응답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대조하는 등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Glaser & Strauss, 1967)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도출하였다.

<표 3> 양식 코딩 범주틀

양식의 유형		양식의 광고 ⁶⁾ 에서의 실현 양상
색깔	문자	팻말/제품 정보
	이미지	배경/의상/제품/소품
	문자	
크기	이미지	제품/인물
	문자	
레이아웃	배치	중앙/주변
	구도	위아래/중앙주변/오른쪽왼쪽/바깥
벡터	인물 시선	여자의 시선/남자의 시선
	카메라의 시점	카메라의 주관적 시점/카메라의 객관화된 시점
	방향	남자의 지나침(포함배제)/여성의 하강/남성의 상승
모션	제스처	설탕을 내미는 포즈/여자가 고개를 젓힘
	표정	남자의 표정/여자의 표정
	행위	남자가 음료를 마심
이미지	제품이미지	
	배경이미지	파티장/탄산 배경
	인물이미지	성별/인원수/팻말 여부 /외양/소품/인증
청각	내레이션	인물의 대사
	효과음	탄산소리
	배경음악	

- 6)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양식의 정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광고 영상은 N 사이다의 제품 광고이다. 광고를 구성하는 양식과 그 의미 작용에 대한 설명은 편지윤 외(2018)를 참고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자 3인이 각각 분석을 진행한 후(1차 분석), 상호 교차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교차 검토하여 종합(2차 분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양식의 범주 및 양식별 정보성 인식의 수준 및 경향을 도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양식의 정보성 인식의 양적 양상

양식의 정보성 인식의 ‘양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양식으로 ‘인식’하는 기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양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지각’하는 수준을 넘어, 기호를 의미화 기제로 상정하고 그 의미 작용을 해석 및 이해하는 사고의 수준으로 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지각’의 경우, 시선 추적 결과 해당 기호를 응시하였으나 정보회상 검사 및 인터뷰 결과에서 회상하지 못하고 의미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식’의 경우, 시선 추적 결과 응시하였으며 정보회상 검사 및 인터뷰 결과 의미처리를 한 경우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도출된 양식(mode)의 목록

양식	빈도
문자	7
내레이션	7
인물 이미지	7
이미지의 색깔	6

벡터(움직임 방향)	6
레이아웃(배치)	5
배경 이미지	4
벡터(인물의 시선)	3
효과음	3
배경음	3
문자의 색깔	2
레이아웃(구도)	2
제품이미지	2
모션(제스처)	1
모션(표정)	1
모션(행위)	1
이미지의 크기	0
문자의 크기	0
벡터(카메라의 시점)	0

총 7명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의미처리를 한 양식의 유형은 ‘문자, 내레이션, 인물 이미지, 이미지의 색깔, 벡터(움직임 방향), 레이아웃(배치), 배경 이미지’였다. ‘문자’나 ‘내레이션’과 같이 의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에 대한 의미처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문자’나 ‘내레이션’에 비해, 의미 정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인물 이미지’에 대한 양식 처리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정보 회상 및 인터뷰 분석 결과, 학생들은 ‘성별, 인종, 패밀 여부, 인원수, 의상, 소품’ 등 ‘인물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미지를 해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미지와 시각 요소에 주목하는 양상은 ‘색깔’과 ‘배경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학생들은 인물의 의상을 제품의 색깔과 연결하는 등 ‘색깔’의 의미 작용에 주목하거나, ‘배경 이미지’를 탄산음료라는 상품과 연결 짓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내레이션’과 같이 청각 양식에 해당하는 ‘배경음’과 ‘효과음’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의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시각 이미지의 경우와 상반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양식의 의미 작용에 대해 상이한 주목을 보이는 경향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학생들이 시청한 광고는 홍보 제품과 타사 제품 간의 대립 관계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벡터’나 ‘배치’와 같은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것이 광고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두 양식의 의미 작용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읽어내었으나, 상하, 좌우, 중앙 주변과 같은 ‘구도’는 양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미지나 문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적 쓰임만을 언급하여 ‘크기’의 양식적 쓰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광고를 읽는 과정에서 학생이 주목한 부분이 곧 양식으로의 의미처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학생들의 시선추적 결과이다.



<그림 1> ‘문자’ 및 ‘모션’에 대한 주목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의 경우에는 ‘문자’에 대한 주목도가 곧 양식 인식으로 이어진 반면, 인물의 ‘표정’과 같은 ‘모션’의 주목도 결과는 양식 인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특정 양식에 주목하였으나 의미화 기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식을 지각하는 차원과 양식을 인식하는 차원이 분명히 구분됨을 방증하는 근거가 된다.

2. 양식의 정보성 인식의 질적 양상

본고에서는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 학생이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인식하는 수준 및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양식의 의미 작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앎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양식이 있는가, 둘째,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수준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생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가?

(1) ‘문자’와 ‘내레이션’

광고의 의미를 해석할 때, 학생은 ‘문자’ 및 ‘내레이션’을 구심점에 두고 의미구성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생이 광고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 양식인 ‘문자’와 ‘내레이션’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문자’와 ‘내레이션’에 대한 학생 인터뷰 사례이다.

학생 B: 보통 딱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되게 글자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영상을 볼 때도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영상도 옆에 약간 부연 설명같이 있잖아요. 얘가 누구라는 것,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던데 이런 게 작은 글씨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글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 사실 얼굴에 눈이 더 많이 가진 했는데, 칼로리라는 걸 글자를 보고 알아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연구자: (이 장면에서는) 내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학생 E: 남자가 너희들이 싫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무슨 사이다가 사교성이 제로야 이러고, 남자가 맞아 난 제로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로 사이다를 의미하는 남자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 그럼 항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나요?

학생 E: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자막 같이 광고가 나오면 자막도

보고 사람도 보고 배경음악도 좀 듣고 그래요. 자막을 보고 내레이션을 들으면 좀 더 기억이 잘 나가지고.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문자와 내레이션에 대한 학생의 양식 및 양식의 의미 작용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는 높았다. 다만, ‘문자’와 ‘내레이션’에 대한 정보성 인식 수준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생은 ‘문자’ 양식을 통해서 광고의 주요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글자가 있어서 이미지가 정리(학생 D)’된다고 말하는 등 문자를 내용 이해의 가장 주요한 양식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내레이션’의 경우, 광고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학생 A)’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남녀의 대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나 ‘구도’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내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대비 구조를 수월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말을 툭 던지(학생 B)’거나 ‘속삭이면서 유혹하(학생 G)’는 것과 같은 ‘내레이션’의 뉘앙스를 통해 광고의 분위기를 구성해 나가며 광고의 의미를 정교화하여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자’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시각 양식이며, 학습자들에게 관습적으로 의존도가 높고 익숙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자 중심 텍스트에서의 ‘문자’ 양식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해석 전략이 재매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때의 ‘문자’ 양식이 기존의 단일양식 텍스트에서의 ‘문자’ 양식과 다른 맥락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의 ‘문자’ 양식이 여전히 구심점으로 작용함에 대해서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인터뷰 사례에서처럼, 학생들은 복합 감각적으로 전이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 기호로써, 양식 간 연합의 용이성이 높아진 ‘문자’ 양식을 익숙하고 수월하게 의미화하고 있다.

학생 B: 이거는 여기 글씨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글자 큰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글자가 있는 것도. 이거는 저희가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하얀, 투명, 파란색은 맑은,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잖아요. 되게 맑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처럼 학생들은 ‘문자’ 양식이 표상하는 일차적인 내용 메시지를 수용하는 동시에, ‘문자’에 적용된 ‘색깔’이나 ‘크기’, 문자의 배경이 되는 ‘색깔’과의 대비, 더 나아가 ‘배치’ 등과 같은 공간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문자’에 적용되는 복합적 양식들의 작용을 정교하게 읽어낸다. 이때 학생들에게 ‘문자’ 양식은 익숙하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구심점 양식이 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읽어내야 할 양식이 되기도 한다.

이에 있어서, 디지털 문식 환경 하에서 양식의 정보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해당 양식이 ‘중심’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심점’이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복합화하여 나갈 수 있는 양식인지를 학생이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양식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내레이션’은 광고의 의미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양식이었으며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식이었다. 이는 청각 양식인 ‘내레이션’의 직접적인 내용 의미 전달 기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광고에서 ‘내레이션’을 통한 인물의 목소리가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식이 담지한 정보량과 그 비중을 차치하고서라도, 학생들이 이 양식을 정보를 회상하고 의미화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해당 양식에 대한 정보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음성 정보(Auditory Information)보다 영상/시각 정보(Visual Information)가 더 중요하며 기억에 잘 남는다(Pezdek & Steven, 1984)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과 같이, 일부 학습자들은 ‘문자로 크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게, 소리보다는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아요.(학생 D)’ 라거나, ‘눈이 조금 편해지니까 귀가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학생 B)’

와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자’와의 상대적 비교에 대한 인식으로 실제 해석 시 ‘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청각 양식 중 ‘배경음악’과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 작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양식의 의미 작용과의 관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 의미 작용을 논하는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청각 양식은 대체로 몰입이나 이해의 용이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B: (영상에서의 글자를 이미지라고 언급한 학생) 이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때, 그때 배경음악이 좀 더 몰입하게 해줬고, 내레이션까지 추가하니까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 학생은 ‘문자’와 ‘내레이션’을 구심점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광고의 의미를 처리하는 경향성을 보여, 이와 같은 직접적인 내용 이해 양식에의 정보성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양식들의 경우 학생들의 전략적 사용은 활발하지 않았다.

2) 양식의 의미 작용을 어느 수준으로 읽어내는가?

(1) 색깔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수준은 해당 양식의 힘의 해석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의를 파악하는 방식과 해석 결과의 다양성에 따라 해당 양식에 대한 친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광고에서 사용된 ‘색깔’에 대한 다양한 의미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광고에서는 흰색, 빨간색, 초록색과 같은 ‘색깔’이 인물의 의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색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의 의미 작용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학생 A: 색소는 빨간색이 진하고 강렬하잖아요. 일부러 빨간색을 쓴 것 같고, 설

탕은 설탕이 흰색이니까 흰색 사용했고, 칼로리(는) 다른 (다이어트 제품) 광고할 때도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학생 E: 칼로리가 초록색을 입고, 색소가 빨간색을 입고, 설탕이 흰색 옷을 입었던 거 같아서 (중략) 옷 색깔은 그냥 딱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흰색의 경우, 학생들은 ‘설탕’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색의 쓰임이라 인식하거나, 주인공인 남성의 흰색 의상을 ‘사이다’ 및 ‘깨끗함, 청량함(학생 G)’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는 흰색의 직관적이고 관습적인 쓰임에 익숙한 학생의 배경지식이 활성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기도 하고(학생 A), 주인공의 색깔인 흰색과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만 인식하거나 (학생 G), 해당 색이 사용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학생 E).

이처럼 흰색에 비해 빨간색이나 초록색과 같은 ‘색깔’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편차가 다양하였다. 이는 각 색깔의 의미 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다름을 보여준다.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한 의미화 패턴이 생성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이를 색깔의 의미 작용 방식에 대해 친숙하지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빨간색과 초록색과 같은 ‘색깔’의 쓰임에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해석을 해내기도 하였다. 양식의 함의를 해석해 내는 데 있어서 의미의 다양성을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색깔’이라는 양식 자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 맥락상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의할 수 있는 C사의 콜라, C사의 사이다라는 경쟁 상품까지 연상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양식의 쓰임에 비판

적으로 접근하는 해석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처럼 ‘색깔’이라는 시각 양식 자체는 고정관념 혹은 개인적 경험과 같은 학생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친숙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색깔’에 대한 규약화 혹은 의미구성의 열린 가능성성이 의미 정교화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레이아웃과 벡터

광고가 함의하는 주인공 남성의 ‘상대적 우월감’이나 남녀의 ‘대비’와 같은 구조를 이해하는 양식에 대한 정보성 인식을 살펴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레이아웃’과 ‘벡터’에 대한 인식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벡터’의 경우, 학생들은 남성과 여성의 시선이라든지, 몸의 움직임 방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인물들 간의 대립 관계를 읽어내었으나, ‘레이아웃’을 통해 인물 간 관계나 광고 제품의 속성(우월함과 차별성)을 읽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생 A: (여자가) 설탕을 보여주면 이 남자가 지나가는 게 설탕을 (무시하고) 지나쳐 지나가는 게 설탕이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 학생들이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광고 제품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포착하기는 하였으나, ‘난 너희들과 섞이기 싫어’라는 청각 양식 등 다른 양식과의 의미 작용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 의미 작용을 논하는 수준이었다.

‘레이아웃’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화면의 한 가운데에 나와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학생 C)’라고 응답하거나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 기보다는 가운데에 자꾸 시선이 간다(학생 F)’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레이아웃’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나, ‘레이아웃’을 구조 이해의 의미화 기

제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처럼 ‘구도’를 통한 중요도 파악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구도’나 ‘배치’를 통해 상승이나 하강이 긍정성과 부정성 혹은 우월함과 미숙함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해석해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학생들이 전체 광고를 통해 인물들 간의 상하 관계, 대립적 관계 그리고 광고의 홍보 목적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레이아웃’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성 인식은 ‘레이아웃’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의미 작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문자 텍스트의 구조 혹은 담화 표지의 의미 작용이나 그 비중에 견주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전체 텍스트의 구조나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 데 있어 ‘레이아웃’의 의미 작용을 중요한 표지로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3) 크기

학생들은 ‘크기’에 대해서는 양식적 쓰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크기’에 대해서는 주로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언급하거나,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크기’를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양식으로써 의미 실현의 기제로 활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학생 G: 배경이 회색이니까 팻말 뒤에 색깔이 있으면 잘 보이는데, 얘(설탕)는 그게 아니니까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는 이미지나 문자 등 타 양식과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해당 양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존의 문자 중심의 단일양식 텍스트에서의 크기의 조절이나 크기의 변화에 대해 중요도와 높게 인식함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 학생이 ‘크기’에 대해 갖는 양식의 정보성 인식 수준이 낮음은 의외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다. 이는 향후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V. 논의 및 제언

본고는 디지털 문식 환경에 익숙한 중학생들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국어교육적 시사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결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식의 다양한 의미 체계에 대해 학생들은 친숙한 양식을 구심점으로 삼아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해석 패턴을 유사한 상황 맥락 하에 재적용하는 것과 같은 양식 및 양식 의미화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식의 의미 작용에 대한 다양한 의미구성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양식이나 그의 의미화 작용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식의 쓰임에 익숙하지 않아 양식을 전략적인 의미 실현의 기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광고 제작 의도에만 천착하여 광고를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암묵지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양식들이 있었는데, 이는 경험 혹은 학습을 토대로 학생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에 대해 설명해내지 못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텍스트 해석 시 학생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양식 및 그의 쓰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결국 비판적이고 감상적인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교육적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것과 관련한 읽기 교육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광고를 비롯한 복합양식 텍스트는 의미 작용에 관여하는 양식의 수가 다양함에 따라 다양한 표상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양식들(mode)인 문자,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구조 등이 표상하는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최숙기, 2013). 또한 양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정보적인 기호 체계로,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능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양식이라는 문화적으로 규약 된 기호 체계가 함의하는 바를 그의 의미 작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석해낸다. 또한 복합적인 양식들이 내포하는 양식의 상징성, 함축성은 문화적으로 규약이 되는 면도 있지만, 시공간적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 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생은 텍스트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기호 체계를 읽어나가며 의미를 구성하여 왔다. 텍스트 읽기를 위한 양식 중심의 교육은 전문적인 영상 이론에 대한 것이라거나 미학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텍스트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양식의 의미 작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쓰기 성취기준에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라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시각 이미지, 소리, 음악, 등장인물의 말, 자막 등 영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구성해야 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기술과학부, 2012; 54).

그러나 학생들은 복합양식 텍스트에서 해당 ‘요소’의 보편적인 ‘특징’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가령 배경음악은 영상 속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영상을 구성할 때는 적절한 배경음악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에서는 매체의 복합양식적 특성을 강조하며, 교수·학습 및 유의 사항에서 ‘매체별 유형 같은 비본질적인 내용이나, 기호의 하위 유형 등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의미 생산과 전달 방식의 특성과 복합 양식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교육부, 2015: 110)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양식’에 대한 접근보다는 ‘매체’ 혹은 해당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인 설명 학

습에 그칠 우려가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 학생은 광고에서의 색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적용하거나 색깔로 인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을 파악하였다. 이는 광고 혹은 광고에서의 양식이 함의하는 경쟁 상품에 대한 의미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양식의 의미 생산과 전달 방식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 해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대한 고차원적 사고를 신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자 양식에 대한 확장적 인식에 기반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복합양식성 관련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언어 중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언어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의미 실현에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현상에 주목(옥현진, 2008; 정현선, 2005; Kress, 1997; The New London Group, 1996; 김희동, 2015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학생들은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어낼 때 문자 양식을 구심점으로 삼고 다양한 양식들을 상호 재매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단일양식 텍스트 교육에서의 언어 중심주의적 교육관으로의 회귀나 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합양식 텍스트에서의 문자 양식이 이미 이전과는 그 존재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복합양식 문식성의 전제가 되는 언어관을 언어 중심에서 기호 중심으로 확대(정혜승, 2007; 166)하면서 복합양식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자 양식에 대한 확장적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양식의 의미 작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2018. 4. 30. 투고되었으며, 2018. 5.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6. 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훈식·이성미·노태희(2006), 「다중 표상 학습에 적용한 그리기와 쓰기에서 시각적 정보에 형 태에 따른 교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3), 367-375.
- 강훈식(2007), 「과학 영재 및 일반 학생의 과학 학습에서 외적 표상들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탐색」, 『국제과학영재학회지』 1(2) 97-108.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제2012-14호)』, 서울: 교육과정기술부.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김선아·박효영·이수진(2017), 「융복합 교육을 위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복합양식성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62, 31-51.
- 김희동(2015),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문자의 공감각화와 국어교육적 의미」, 『새국어교육』 104, 65-91.
- 남정희·박지연·이동원(2012), 「탐구적 과학 글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에 미치는 영향 및 다중 표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대한화학회지』 56(6), 759-767.
- 백혜선·이규만(2013), 「프레젠테이션에 나타나는 복합양식 문식성 실행 양상 분석: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6, 389-413.
- 송여주(2013), 「국문학: 복합양식적 관점의 문학 교재 구성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96, 433-455.
- 신지연(2007), 「시(詩) 텍스트의 일곱 가지 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3, 21-44.
- 신지연(2016), 「문학 텍스트의 정보성」, 『텍스트언어학』 40, 87-112.
- 오장근(2014), 「이미지의 텍스트성에 대하여: 사진 텍스트 읽기를 예로 하여」, 『텍스트언어학』 36, 209-229.
-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옥현진·서수현(2011),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46, 219-243.
- 윤재연(2004), 「국어학: 텍스트의 비예측성」, 『겨레어문학』 32, 85-110.
- 윤재연(2005), 「TV 광고 텍스트의 전략에 대한 연구: 수용자의 홍미 유발 방식과 브랜드 노출 전략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4, 59-114.
- 이석규(1998), 「시 텍스트의 정보성 탐색 연구」, 『국어교육』 96, 455-476.
- 이재은(2017), 「유아의 표상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성 실천 양상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323-343.
- 이지영(2013), 「학교 현장의 매체 기반 독서 교육 내용 연구: 복합양식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0, 91-119.
- 정현선(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8, 307-337.

- 조국현·김근혜(2017), 「영상텍스트의 텍스트성: 영화 예고편(trailer) ‘암살’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을 예로」, 『텍스트언어학』 43, 221-247.
- 주민재(2017), 「모바일 환경에서 복합양식적 텍스트의 활용 양상」, 『국어문학』 64, 331-360.
- 최숙기(2013), 「복합 양식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읽기 행동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시대의 읽기 교육 방안 탐색」, 『독서연구』 29, 225-264.
- 편지윤·변은지·한지수·서혁(2018),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493-522.
- 편지윤·강지은·이혜인(2015), 「디지털 문식 경험에 따른 양식(mode) 사용 양상 분석」, 『작문 연구』 27, 145-180.
- Cope, B. & Kalantzis, M. (2009), "Multiliteracies: New literacies, new learning", *Pedagogies: An International Journal* 4(3), 164-195.
- Costley, J., Hughes, C., & Lange, C. (2016),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design on student engagement with video lectures at cyber universiti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search* 16(1), 189-207.
- De Beaugrande, R. & Dressler, W. (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이현호 (역), 서울: 한신문화사(원서출판 1981).
- Glaser, B. G., Strauss, A. L., & Strutzel, E. (196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Research* 17(4), 364.
- Jewitt, C. (2008), "Multimodality and literacy in school classrooms",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32(1), 241-267.
- Kress, G. (1997), *Before writing: Rethinking the paths to literacy*, London: Routledge.
- Kress, G.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
- Kress, G. (2010),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 Leander, K. M. & Lewis, C. (2008), Literacy and internet technologies. In B. V. Street & N. H. Hornberger(Eds.), *Encyclopa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New York, NY: Springer.
- Nouri, J. (2018), "Students multimodal literacy and design of learning during self-studies in higher education", *Technology, Knowledge and Learning*, Online First Article, 1-16.
- Pezdek, K. & Steven, E. (1984), "Children for auditory and visual information on televi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12-218.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oberts, D. (2017), "The engagement agenda, multimedia learning and the use of images in higher education lecturing: Or, how to end death by PowerPoint",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1-17.

- Selander, N. S. (2016). "Conceptualization of multimodal and distributed designs for learning", *The Future of Ubiquitous Learning*, 97-113
- The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3.
- Walker, J. D., Cotner, S., & Beermann, N. (2011), "Vodcasts and captures: Using multimedia to improve student learning in introductory biology", *Journal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20(1), 97-111.
- Walsh, M. (2006), "The 'textual shift': Examining the reading process with print, visual and multimodal texts", *Australian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cy* 29(1), 24-37.

중학생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 연구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서혁 · 한지수 · 편지윤 · 변은지

이 연구는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의 양식의 기호적 쓰임에 주목하여, 디지털 원주민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과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국어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학생이 무엇을, 어디까지를 양식으로 인식하는지, 각 양식에 대한 친숙도와 전략적 활용 수준이 어떠한지 등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을 양적, 질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자나 내레이션 등 언어 정보가 명료하게 전달되는 양식을 의미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양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양식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는 수준에 있어 양식 간 상당한 편폭을 보였는데, 색깔의 경우 하나의 양식 내에서도 색깔의 쓰임에 대한 관습화 정도에 따라 의미화하는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론적 논의에서와 다르게 벡터라든지 레이아웃과 같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양식들의 쓰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는 의미 작용의 기제로서 양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 학생들의 양식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 양상을 면밀히 살피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핵심어 양식, 양식 인식, 정보성, 정보성 인식, 복합양식성, 시선추적

ABSTRACT

How Do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Mode's Informativity? —Using Eye-tracking Device

Suh Hyuk · Han Jisoo · Pyun Jiyun · Byeon Eunji

This study focuses on the symbolic use of mod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aims to deriv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level and aspect of perception about “mode’s informativ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digital natives. We examined the aspect of perception of informativity i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men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 that clearly communicates the language information such as “the written language” and “the narration” tended to be perceived as the core mode in the meaning construc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reading the meaning of the modes showed significant deviations between modes, and the color showed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customization of the use of color, even in a single mode. Unlike the theoretical discussion, students tended not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use of mod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tructures, such as vectors and layouts.

The above discussion suggests the necessity of systematic education on modes, a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follow-up study to examine the students’ understanding and its usage about modes.

KEYWORDS Modes, Perception of Modes, Informativity, Perception of Informativity, Multimodality, Eye-tracking